

한 정병학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 회원들의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계열화사업체와 계약사육농가와의 상생협의를 통한 상호 이익증진,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닭고기 우수성 홍보를 통한 회원이익증대와 웰빙식품 소비확대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등 4대 기본 목표를 가지고 협회를 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병학 회장은 국내 계육산업은 육계 계열화사업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FTA 등 개방화가 가시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미, 한·EU FTA에 대비하여 육계 생산시설 현대화 등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향상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우선 닭고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육계 계열화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계열화사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열주체와 계약사육 농가 간 상생을 위한 농가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난계대 질병, 호흡기 질병 등 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계·부화장 HACCP 매뉴얼을 마련하여 방역 및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을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협회 운영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닭고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닭고기 산업 발전 방향 모색, 계열화 산업 육성법 모델 제시, 닭고기 산업 규제 완화 방안 강구, 닭고기 덤핑 판매 금지 협약 등 유통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병학 회장은 끝으로 계열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계열화사업자와 농가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서로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목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조해 나가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회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계열생산위원회 개최

▶ 북경기 수급상황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6월 8일 천안 소재 한 식당에서 계열생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북경기 수급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약 5~10%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에는 날씨도 더울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생산



비를 웃도는 2,0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월간 닭고기’ 창간 16주년 기념

▶▶ ‘퀴즈 풀고, 닭고기 선물세트 받자!’ 이벤트 실시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가 2011년 7월호로 창간 16주년을 맞아 ‘퀴즈 풀고, 닭고기 선물세트 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 16일(당일 우편소인 유효)까지로,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7월호 맨 뒷면에 있는 애독자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시면, 정답자 중 16분을 추첨하여 (주)하림·(주)마니커의 ‘닭고기 가공품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8월 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P100 참조).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문제〉

“○○○○마크”는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이점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한국계육협회에서 제정한 마크입니다.”

AI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 보완

▶▶ 회원사에 공문 발송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추가했다.

본회는 이같은 사항을 본회 회원사에 공문 발송했다.

아울러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사업(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관이 각 시·도이므로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AI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지침(보완)’을 검토, 해당되는 경우 각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 다음 -

가. 사업명 : 소득안정자금(과체중으로 인한 손실농가)

나. 지원대상

: (현행) 위험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 (추가) AI 의심신고 후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검사시간 소요에 따라 정상출하가 지연된 농가

초복(7.14), 중복(7.24), 말복(8.13)에는

우리 닭고기로 만든 삼계탕으로 더위를 이겨내세요!!